

북한 사회연구 혹은 사회학적 북한연구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 좋은벗,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서울: 정토출판, 1999)
- 좋은벗,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서울: 정토출판, 2001)
- 민족21, 『북녘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서울: 선인, 2004)
-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서울: 당대, 2000)
- 이기춘 외,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서울: 서울대출판부, 1997)
- 김병로, *Two Koreas in Development*(Transaction Publishers, 1992)
- 서재진, 『또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 1995)
-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서울: 한울, 2003)
- 최원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서울: 한울, 2004)

1. 들어가는 말

반세기가 넘는 분단체제하에서 북한연구는 단순히 학문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연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이 적대적인 국가체제라는 사실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어렵게 한 또 다른 요인은 북한에 대한 정보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기본적으로 독자적 사회발전을 추구하면서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고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였다는 점이 북한 연구의 발

전을 가로막은 핵심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입장, 정확히 말한다면 국가의 정치적 입장에 좌우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냉전기의 북한연구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동시에 지배권력의 정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홍보수단에 불과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냉전시기의 북한연구는 ‘북한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북한의 무엇이 나쁜가’를 밝혀내는 데 치중하였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이 전제된 학문이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실판단보다는 진위판단을 지향하는 ‘목적론’(teleology)적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진위판단을 지향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사실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드러나는 사실들에 대한 판단에서도 논리보다는 정치적 잣대가 결정력을 갖는 이상 학문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혹은 과학적)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냉전구조의 해체,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이 선행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관련자료의 국가적 통제가 온존하고 있으며,¹⁾ 구체적인 학문적 성과가 아닌 북한을 보는 관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실에서²⁾ 북한연구의 학문적

1)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2) 내재적 방법론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데 사실 외적으로는 방법론적인 논의인 것 같으나 내용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관점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3) 참조.

수준을 제고하는 일이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적 환경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시기의 북한연구의 또 다른 경향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북한연구와 북한정치연구가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분단을 이념의 차원에서 인식하였고, 북한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북한연구의 주된 동기가 되는 한, 북한 정치체제나 이념이 북한연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연구에서 주체사상이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연구, 그리고 대남전략 등이 주류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³⁾ 북한이 하나의 국가인 동시에 완결된 하나의 사회체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학 일변도의 북한연구는 그 자체로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이라는 공식적인 남쪽의 통일방안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이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일변도의 편향적인 북한연구는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그 동안의 냉전적 사고의 지속과 이에 말미암은 북한에 대한 이념비판적인 연구라는 문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밖에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에도 북한사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사회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사회 현실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을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현실이었다. 최근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3) 송승섭, “북한관련 연구 동향의 계량적 분석,” 『북한』, 313호(1998년 1월) 참조

는 하지만, 남한사람들은 평양 등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더라도 자유로운 조사활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일 직접 방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다면 인류학에서 이야기하는 ‘원거리 연구’(long distance study)가 가능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특히 제도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의식이나 사회현실의 동적 과정에 관심을 갖는 사회학의 특성상 공식적인 자료 —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 만이 존재하는 한 북한사회연구는 여의치 않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학은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방법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과학적 엄밀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이론적 바탕을 중시하는 학문적 특성상, 자료의 심각한 부족은 북한을 사회학적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세계적인 냉전시기에 서구의 사회주의 연구도 정치학이 주도하였고, 사회학적 접근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북한사회 연구가 미비한 현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참고할 만한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체제의 대한 연구 부재는 북한사회연구의 어려움을 배가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사회학계가 북한 혹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정치학과를 운용하는 대학에서는 북한정치 전공연구자를 교수진에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북한이나 통일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학과에 북한을 전공하는 교수가 있는 학교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통일을 관련한 과목을 사회학과에서 개설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냉전질서가 와해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동시에 남한의 민주화도 진전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접근도 점차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의 사회문화체제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고,⁴⁾ 독일통일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북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도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 물론 북한연구에서 사회학적 연구나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북한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나 북한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 사회연구

학문적 성과는 고사하고 현상에 대한 기술적 논의조차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사회를 소재나 주제로 한 책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직접 저술하거나,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하는 방식,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북한방문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묘사한 저서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저서들은 현상을 기술하

4) 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성화된 교류의 중심에는 각종 공연을 포함한 사회문화교류가 핵심이었다. 북한의 문화를 직접 경험한다든지, 북한현실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문화, 북한사회, 그리고 북한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5) 사회학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여타 학문에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성운, “「북한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반세기 북한연구사』(서울: 한울, 1999) 참조.

는데 그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북한체제 특히 북한사회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북한이탈 주민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좋은벗들’이 발간한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서울: 정토출판, 1999),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서울: 정토출판, 2001) 등은 북한사회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가치 있는 저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는 북한주민 1,027명과 남한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북한 현실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북한주민의 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학문적 수준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월간지 민족21에 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출판된 『북녘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서울: 선인, 2004)도 주목할 만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북녘인민생활사’를 지향하는 이 책은 취재진의 취재와 협력관계에 있는 『조선신보』를 통한 간접 취재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경로를 따라 구성된 이 책은 무엇보다 그동안 간접적인 경로로만 가능했던 북한사회의 실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체험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학적 분석을 지향하는 학술서적은 아니고, 저널리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사회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직접 조사로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갖는 의의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현실 특히 사회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위의 책들은 북한 관련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 북한 현지 조사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차원에서 과학적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을 만든 주체의 북한에 대한 관점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좋은벗들’의 책들은 책을 펴낸 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북 인도 지원사업을 해왔기 때문이겠지만, 북한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민족21의 책은 잡지사의 진보적 입장을 대변하듯이 북한 사회현실의 밝은 면만 부각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책들이 다루고 있는 북한사회의 현실이 부분적인 것일 수가 있으나 이를 전체적인 차원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논리학적으로 ‘전체성의 오류’⁶⁾라고 하는 현상이 북한과 관련해서 더욱 강한 경향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책들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저서 가운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떠나 학문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책은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김귀옥 외, 서울: 당대, 2000. 이하 『북한여성...』)과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이기춘 외,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7)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개의 책은 일단 저자들이 사회학, 가정학 등의 전문연구자들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책들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당연히 이들 책은 분석적인 동시에 학술적인 서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학 전공자들이 펴낸 『북한여성...』은 제목 그대로 북한여성들에 대한 종합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여성학적 문제의식이 토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단순히 여성의 현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북한 현실을 분석하거나(로동신문 속의 현대 북한여성), 가

6) 전체성의 오류는 논의의 대상을 개별화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흑인은 지저분하다라든지 여성은 생각이 없어 하는 식의 논의가 전체성의 오류이다. 흔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가 나타난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북한 사람들은 무섭다거나 북한은 호전적이라거나 하는 식의 생각이 일종의 전체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족관계 속에서 북한여성을 살펴보거나(조선여성과 북한의 슈퍼우먼), 세대문제라는 차원에서 여성의 현실을 검토하거나(새 세대 소설로의 여행), 교육학적 차원에서 여성상을 분석하고(동화와 교과서 속의 여성상) 있다. 그리고 말미의 좌담 '현대 북한영화 속의 여성들, 그 삶과 꿈'은 부분적으로 문화사회학적인 방법으로 북한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학이나 여성학의 중요 개념을 토대로 북한여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기존의 북한사회 관련 책들보다 분명히 진일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문적 개념을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체제와의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사회에 대한 특수론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문, 잡지, 증언 공식문건, 그리고 영화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문제에 고민하는 북한연구 일반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본격적인 북한여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서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저자가 서문의 제목으로 내세운 '우리는 왜 여전히 북한을 모르는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여전히 북한을 잘 알지 못하는 남한사람들에게 북한여성을 알리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반공을 위한 책들과 차원은 다르지만 이 책도 역시 목적론적 접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책은 북한사회 현실에 대한 정보제공과 북한사회에 대한 학문적 분석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가정생활문화는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다. 제목의 앞에 '통일에 앞서 보는'이라는 말처럼 통일 혹은 통합을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의 후반부를 구성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부분(탈북인의 남한생활 적응, 탈북인과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지원에 대한 남한주민의 의식실태)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관련된 부분(남북한 사회통합 후 북한 이주민 생활 적응 지원 방안, 남북한 생활문화 통합의 모색) 등은 북한 사회현실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일종의 정책 보고서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책의 앞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북한의 생활문화연구’와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실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북한의 미시 영역 연구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학문분야의 편협성과 더불어 북한연구에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나치게 체제중심의 거시적 연구가 일방적이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미시 영역연구는 북한연구의 한계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학 전공자들인 저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면접을 자료 수집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관련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중요한 자료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면접과 설문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문헌자료도 비교적 충실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이 갖는 중요한 의의는 일반적인 생활문화와 가정생활문화 연구의 개념과 분석틀을 북한 연구에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북한 연구를 특수한 개념틀이 아닌 보편적인 분석틀로서 연구한다는 것은 앞의 책과 마찬가지로 북한 특수주의를 극복하게 하는 동시에 다양한 비교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전망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책은 북한연구에 과학적 방법론을 엄밀하게 적용하였

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연구모형을 만들고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은 자료의 부족을 명분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북한연구 현실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또한 설문 대상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양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가정과 생활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몇 가지 아쉬움 점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이 책의 뒷부분이 정책보고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책의 구성은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생활문화 연구과 남북생활문화 통합을 연결하는 것이 그다지 어색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연구나 통일관련 연구들이 실천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증에 빠져 있다는 일반적 현상에서 이 책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다시 자료의 문제로 돌아가지만, 생활문화의 집단별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생활문화에도 세대나 지역을 넘어서서 공통적인 현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또한 시간적인 차이, 즉 변화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로 삼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입국하는 시점에 따라 집단의 속성이 적지 않게 다르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주화를 보다 세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학문적 분석틀을 구성하고 과학적 조사방법을 동원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책 또한 북한생활문화를 분석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북한 생활문화를 소개하는 기능에 더욱 충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학적 북한연구

앞에서 살펴본 북한사회에 연구관련 책들은 저자의 특성이나 출판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최근 들어서 이루어진 몇몇 저서들은 본격적으로 북한체제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책들이 북한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여전히 생소한 북한사회의 실상을 전달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사회체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김병로의 『Two Koreas in Development』(Transaction Publishers, 1992)는 본격적인 사회학적 북한연구의 효시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책이다. 저자의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남북한체제를 사회발전론의 시각에서 비교 검토한 연구서이다. 남북분단을 이념적인 차원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보편적인 제3세계 발전론의 시각에서 분단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치나 이념적인 차원의 분단연구 남북비교 연구도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치적 선입견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실판단보다는 진위판단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사회발전론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변화의 일반적 흐름 속에 남북한 체제를 위치 지음으로써 각 체제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던 북한연구 일

반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동안 북한체제 논의,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정치학적인 북한체제 논의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북한 국가의 전근대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⁷⁾ 반면에 이 책에서와 같이 발전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산업화라는 사회변화를 경험한 근대국가가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 책의 직접적인 주제가 아닐지라도 남북교류나 통합문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그동안 분단체제론에서 이야기되었던 ‘분단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학적 논의들을 이용하여 남북한 사회발전을 비교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이 책이 갖는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구조나 전략을 다루는 책의 주제에서 비롯된 문제이겠지만 문화나 인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다른 발전전략을 세운 두 체제의 비교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재진의 『또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 1995)의 경우도 사회학적 북한연구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부제에 말하고 있듯이 북한의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사회의식은 사회구조와 더불어 사회학의 중

7) 유격대국가론이나 가부장국가론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명시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은 북한의 전근대성을 강조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북한은 비정상국가 혹은 체제라는 가치 개입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8) 분단체제론은 백낙청이 제기한 개념인데, 이에 대한 논쟁이 꾸준하게 지속되었다. 남북한 체제의 성립과 변화가 분단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인데, 김병로의 책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참조.

요 관심대상이나, 그동안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조차 부실한 현실에서 북한의 사회의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자료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유일지배체제를 북한의 특성으로 보는 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의식은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식은 그다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학적 관점을 가질 때에 비로소 북한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책에 3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성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연구영역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북한연구의 지평을 넓혀주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 계급문제, 제2사회론 등 사회학 특히 사회변동론에서 활용되는 개념들을 북한사회의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이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이념이나 개념을 이용하여 북한체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또 하나의 북한사회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존에 발표된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꾸밀 때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중구조를 책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삼은 것 같은데, 양자관계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하겠지만 변증법 관계와 분화 그리고 전체구조에서 하부구조는 논리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민하여 보아야 할 것은 기존의 이론이나 개념들의 적용이 갖는 장점이 아닌 단점이 이 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적 역사경험에서 만들어진 신민사회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민사회론이 북한사회를 분석하는 데 일정한

기여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신민사회론 적용 자체가 북한 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하여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학문적 개념을 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목적론적인 분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체제의 연구나 분석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나 분석틀의 개별사회의 적용할 때는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가 북한연구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의 경우 특히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의 문제가 더욱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박현선의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서울: 한울, 2003)은 북한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학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가족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과 행위론적인 접근을 동시에 시도함으로써 북한가족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갖는 중요한 의의는 방법론적 세심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북한연구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 책에서는 대상자의 성격을 세밀하게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원하고자 하는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분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가 많아야 하겠지만 최근 급증하는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을 생각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가족의 제도와 구조 그리고 행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변화에 대한 관심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학적 분석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연구주제가 이러한 결합이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구조나 제도

아니면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내적 과정을 충실히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은 분명히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학적 접근으로 크게 손색이 없는 현대북한사회와 가족이 갖는 문제는 앞에서 이 책의 전반부에 제시한 가족제도 재생산 메커니즘과 가족 변동모형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저자는 재생산 메커니즘 과정에서 변동모형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후반부의 경험적 연구에서 양자간의 관계가 뚜렷하게 논의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관리조치와 가족변화를 다루고 있는 5부는 앞의 분석들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제목에 충실하자면 가족 연구를 통해 현대북한사회를 다시 규정하여 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욕심을 내자면 일반적인 현대사회화와 가족변화 아니면 최소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가족변화와 같이 비교사회학적 논의가 있었다면 북한가족에 대한 명실상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서울: 한울, 2004)은 저자들이 사회학자들만이 아니고, 다루는 내용도 사회학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 문제의식이 사회학적이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저서이다. 청진, 신의주, 혜산을 연구대상으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사학 전공자들의 공동연구서인 이 책은 무엇보다도 과거 전체론적 관점에서 북한을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을 공간적으로 개별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와 마찬가지로 특정 도시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라는 점에서도 기존의 북한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도시라는 것 자체가 현대 산업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저자들의 전공과 상관없이 이 책은 사회변동이라는 사회학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제1장 ‘공간구조 변화를 통해 본 북한 지방대도시의 도시화과정’이다. 이 부분에서 이 책은 단순히 물리적 도시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 변화가 전제된 도시화연구이며, 동시에 시간적 차원의 변화가 공간적 차원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연구는 최근 사회학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는 분야인 동시에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인 삶의 접점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책은 북한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전공자들이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북한의 지방연구를 활성화하였다는 점도 이 책의 또 다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관계를 중시하는 북한연구에서 북한의 지방은 학문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가로막은 또 다른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학제간 연구답게 지방정치를 포함하여 공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시장 문제, 여성 문제, 복지 문제 그리고 의식의 문제까지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차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하다.

북한도시의 형성과 발전은 사회학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연구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한계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세 도시를 총괄적으로 비교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가지고 분야별 경험적 연구를 결합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면, 세 도시의 비교적 이해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방도시 이해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하였으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분야별 논의에서는 북한체제 전반의 거시적 변화 혹은 추세를 이야기하다가 대상도시의 특성으로 이어지는데, 양자간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세 도시의 차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도 보이는데, 거시적 부분과 미시적 부분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셋째, 학제간 연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분석이나 비교의 틀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 분야가 다르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가능한 동일한 비교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그동안 학문적으로 북한학이라는 말이 가능한가부터 시작하여 북한 연구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합의서에 규정된 애매한 표현처럼 어떻게 보면 연구대상으로서 북한은 특히 북한사회는 ‘우리’ 사회이면서 ‘다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사회연구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사회에 대한 보다 다양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북한사회와 남한사회가 연구 대상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던 간에 지금까지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북한사람 북한문화 등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거창하게 통일을 위해서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아니면 최소한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사회체제라는 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보다는 보다 다양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적 분석만이 아니라

인류학적인 접근, 심리학적인 접근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북한을 연구하는 것이 북한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북한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나 사회학적인 북한연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학적 분석이 다른 학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학적 북한분석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북한 사회연구를 넘어서서 사회학적인 북한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접수: 3월 20일 / ■ 채택: 4월 9일

Studies on North Korean Society or Sociological Approaches to North Korea

Woo-Young Lee(Univ. of North Korean Studies, Sociology)

The system of division in Korean peninsula had influenced North Korean studies in South Korea. Specially a hostile attitude to North Korea has been an obstacle to scientific or objective analyses about North Korea in South Korea. And it was related with the system of division that political science plays an important part in North Korea study. The sociological approach or studies on North Korean society that need direct survey for society was not activated. But,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s since the 1990, and interest about North Korea society rose according as South Korea system is democratized, and social study for the North Korea was activated. Some books on North Korean society and people written by refugees from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visitors in North Korea offer very serious informations about North Korean society, even though their scientific level is not high. Also, a few scholars including sociologist attempted to analyze

North Korean social system with scientific and theoretical methods. These kinds of books are not enough and the scientific precision is lacking, but is thought that will give important suggestions forward studies on North Korea society and scientific analyses on North Korea system.

Key Words: Sociological Approach, North Korean Society, Objective Analyses, Scientific Level, Scientific Precision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동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1991 사회학 박사),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1991-2004). 사단법인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평화교육팀장.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주요 논저로는 “남북한 문화정책비교연구”(1994),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변화”(2000), “북한문화의 수용실태조사”(2001), “귀순용사에서 북한이탈주민까지”(2003) 등이 있다.